



Region 19 사랑의 텃밭

2017 년 1st Newsletter

추억의 기차를 타고... 일년 전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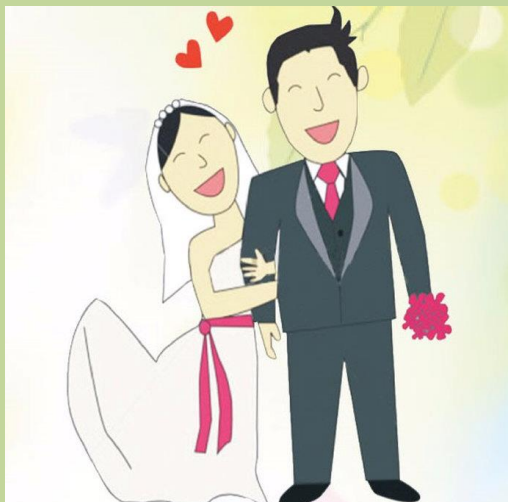
2016 년 미주 한인 ME 연례 총회 및 팀 양성대회

주제: 즐겁게 봉사하기 (Serving with Joy)
2016 WWME REGION 19-USA

ANNUAL BOARD & TEAM ENRICHMENT CONFERENCE

DATE: November 4 - 6, 2016

PLACE: PACIFIC INN Resort Hotel/Vancouver



2017 년 미주 한인 ME 연례 총회 및 팀 양성 모임

2017 년 Region 19 연례 총회 및 팀 모임/
Board 모임이 10 월 27-29 일에
오세완 신부님이 계시는 오마하에서 있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모여서

ME 영성도 키우고, 중요 안건도 결정합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성모 신심과 봉사자의 영성" 으로 성모님의 사랑과 자
비, 그리고 봉사자들의 자세와 사명에 대해 돌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일 10 월 29 일은 WWME 가 정한 " 사제의
날" 이어서 사제님들에게 고마움 표시와 ME 사명을
상기하는 날로써, 미국 곳곳에서 사제를 위하여 고리
기도를 해주셨고 오마하 성당에서 오신부님과 함께
축하미사와 기념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달의 스타]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지난 9월 22-24 일에 캐나다 밴쿠버 씨리에서 첫주말이 있었습니다. 발표팀, 이승호 요한 ♥ 경실 마리아, 진재훈 스테파노 ♥ 선주 세라피나, 주민영 베드로 ♥ 상은 세라나 부부와 총 8쌍의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밴쿠버 첫주말의 발표사제는 북가주 오클랜드 한인성당의 주임 사제이신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신부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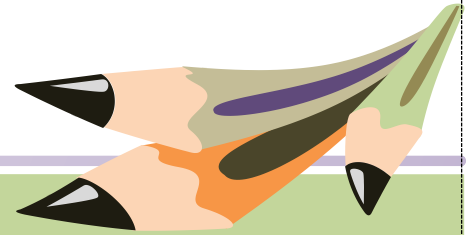
최신부는 아버지 최신박(요셉, 2003년 59세로 선종)님과 어머니 김중운(체칠리아, 65)님의 3형제 가운데 맏이로 태어났다. 철원에서 초. 중. 고교를 나온 뒤 1990년 수원 가톨릭대학에 입학해 대신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고 2000년 1월 25일 사제품을 받았다. 사제품을 받은 뒤 후평동 본당 보좌를 거쳐 흥천 본당 보좌 신부로 청소년 사목에 열중하던 2003년 유학 준비 발령이 났고, 이듬해 6월 아일랜드로 유학길에 올랐다. 당시 교구장 장익 주교의 권고로 미디어를 공부하기 위해 떠난 것이다.

메이누스(Maynooth) 신학대학에서 언어 연수와 함께 이룬 30%에 실습 70%의 '교회와 미디어' 디플로마 과정을 공부하면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제작 및 편집 실무를 먼저 익혔다. 이어 블린 대학(DCU)에서 멀티미디어를 전공해 석사 학위를 받고, 영국 레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Leicester)에서 '매스컴 일반학'으로 다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귀국했다. "유학 중 유럽 교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자체가 미디어다.'라며 미디어를 영성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디어를 단순한 매체로만 보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청중들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으며 치유해 주셨듯이 교회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면서 수용자의 수준에 맞게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나 사제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스스로 미디어가 되어야 합니다." 탁월한 통찰력으로 세계 교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비했던 당시 교구장 장익 주교는 최 신부가 귀국하자,

즉시 홍보 담당자로 발령을 냈고 가장 먼저 교구 사이트를 개편했다. 춘천교구 문화 홍보국장으로서 계셨던 최 신부는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현대인들이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의사소통과 정보를 위한 제3의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3의 감각기관을 가진 이들이 영적인 갈증을 호소하고 있다. 교회는 갈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물을 줄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교회도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여 교우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곧바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데 스마트해져야 한다. 이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이다.'라고 변화하는 문화에 교회도 같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2016년 3월에 오클랜드 성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새주임신부로 부임하신 최신부님의 사제 수품일은 2000년 1월 25일.



제21차 밴쿠버 ME주말(2017.09.22-24)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영명축일





[동네방네 소식란]

Region 19 Ecclesial Team (오세완 바오로신부님, 강창홍 바오로 + 귀순 데레사 부부), 휴스턴에서 열린 US Council Meeting 참석



동북부 ME 주관으로 유럽 성지순례
(김성흠 사도 요한 신부님 지도)



[게시판]

축하드립니다

- 동남부 ME 대표부부 -
손영덕 마티아 + 서명지 카타리나 부부 선출
- 중북부 ME 대표부부 -
여재동 베드로 + 영희 줄리아 부부 선출
- 동중부 ME 대표부부 -
김영술 아놀드 + 생금 레지나 부부 선출



(아르헨티나 ME 발표부부 정진영 레지나 작품)

